

ICT산업 2016년 3분기 동향

I. ICT산업 수출 현황	1
II. 반도체 산업동향	5
III. 디스플레이 산업동향	9
IV. 휴대폰 산업동향	13

확인 : 팀 장 이재우 (3779-6685)
jaewoolee@koreaexim.go.kr

작성 : 선임연구원 이미혜 (3779-6656)
mihyelee@koreaexim.go.kr



한국수출입은행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 요약 >

< ICT산업 수출 현황 >

- '16년 3분기 ICT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5.8% 감소한 416.6억 달러
 - '15년 3분기부터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16년 1분기에는 -10.9%까지 하락하였으나 2분기부터 수출 감소율 개선
 -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0% 감소한 162.9억 달러로 시스템반도체 부진 지속
 - 휴대폰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22.3% 감소한 55.9억 달러로 스마트폰과 부품 모두 수출이 감소
 -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0.1% 감소한 73.9억 달러로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의 공격적인 증설로 수출감소세 지속

< 반도체 >

- 3분기 D램 시장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6.7% 감소한 105.4억 달러
 -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하며 시장 지배력을 확대
 - 삼성전자의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0.2% 감소하여 산업 성장률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임
- 반도체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M&A를 연달아 추진
 - 3분기에는 소프트뱅크의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 ARM 인수 등 510억 달러 규모의 M&A가 발표됨
-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 증가, 4차 산업 혁명 관련 투자 증가, D램 생산 규모 조정으로 메모리반도체 수요와 가격은 단기적으로 양호할 전망

< 디스플레이 >

□ 3분기 대형 LCD 패널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3.9% 증가한 181.1백만대

- 연말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TV, 노트북, 태블릿용 패널 출하량이 모두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TV 패널 출하량이 7.5% 증가
- 대형 LCD 패널 시장에서 LG디스플레이가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BOE가 빠른 속도로 추격중

□ 중국의 추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는 대형 TV 시장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선택

- 삼성디스플레이는 CSOT에 투자하여 대형 LCD 패널 수급을 안정화하고 OLED 투자에 집중할 계획

□ 대형 TV 수요 증가, LCD 사업 구조조정으로 가격이 소폭 인상되면서 디스플레이 업황은 단기적으로 양호할 전망

< 휴대폰 >

□ 3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1.0% 증가한 362.9백만대

- 중국 3사(화웨이, 오포, 비보)의 출하량과 매출액이 삼성전자 출하량과 매출액을 추월하면서 빠르게 성장

- 출하량 기준 시장점유율은 중국 3사가 22.1%로 삼성전자보다 2.1%p 높으며 이들은 중고가 제품 출시를 확대하고 있어 삼성전자에 위협적

□ 전략 스마트폰의 부진으로 인해 국내 주요 기업의 실적 악화 심화

- 삼성전자 IM부문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96% 급락하였으며 LG전자 MC 부문은 '15년 2분기 이후 적자 지속

□ 갤럭시노트 7 파문은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에 영향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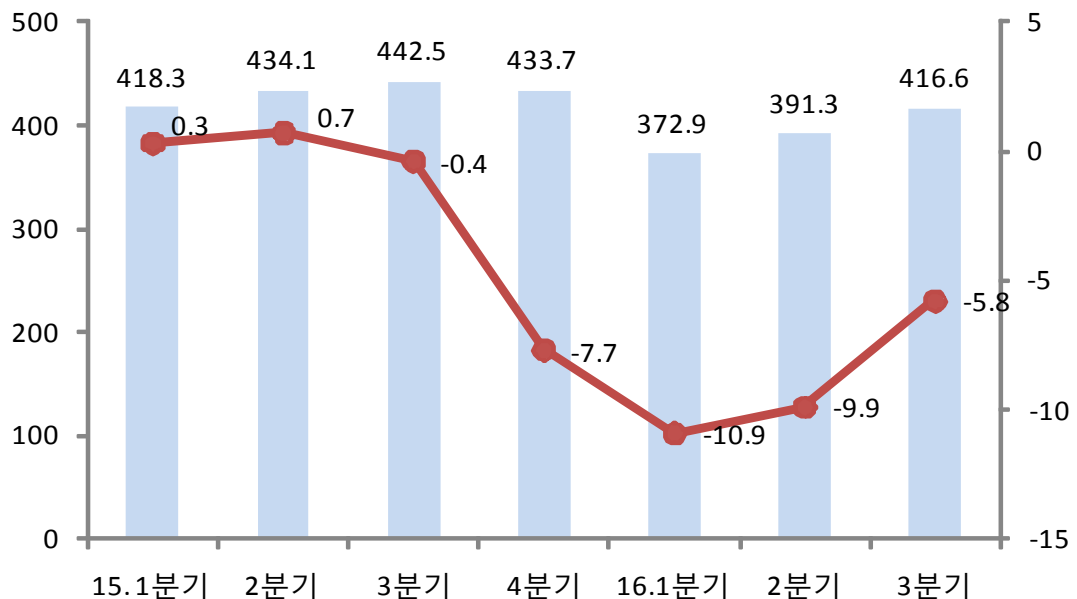
I. ICT산업 수출 현황

□ '16년 3분기 ICT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5.8% 감소한 416.6억 달러

- 반도체, 휴대폰, 디스플레이 등 대부분 품목의 수출이 감소하였으나 수출감소율은 소폭 완화됨
- '15년 3분기부터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되고 '16년 1분기에는 -10.9%까지 하락하였으나 2분기부터 수출감소율이 개선됨

< ICT산업 분기별 수출 추이 >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3분기 반도체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0% 감소한 162.9억 달러

- 메모리반도체 수출은 낸드플래시, 메모리MCP¹⁾ 수출 호조로 전년 동기 대비 0.8% 증가한 91.5억 달러를 달성
- 메모리반도체는 '15년 4분기부터 수출증가율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으나 이후 수출감소율이 완화되면서 3분기 수출은 전년동기 수준으로 회복됨
- * 메모리반도체 수출증감율(%): ('15.4분기)△11.6→('16.1분기)△19.4→(2분기)△0.1

1) Multi Chip Package

○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5.7% 감소한 54.5억 달러를 달성

- 패키징 물량감소 등으로 인해 시스템반도체 수출은 '15년 4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

* 시스템반도체 수출증감율(%): ('15.4분기)△14.0→('16.1분기)△12.3→(2분기)△18.1

< 반도체 수출 추이 >

(단위: 억 달러, 전년 동기 대비 %)

구분	반도체		메모리						시스템반도체	
					D램		낸드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금액	%
15.1분기	154.1	7.4	82.7	11.2	53.5	24.7	7.7	△16.3	56.4	5.1
2분기	155.8	4.7	81.7	△0.2	50.0	9.1	6.6	△38.9	59.6	16.1
3분기	164.5	3.5	90.8	0.7	47.6	△10.5	6.7	△32.3	57.8	8.6
4분기	154.8	△11.6	82.7	△11.5	41.6	△29.1	6.1	△37.8	57.6	△14.0
16.1분기	139.7	△9.3	74.9	△9.4	39.6	△26.0	6.4	△16.9	49.4	△12.3
2분기	147.2	△5.5	81.6	△0.1	40.0	△20.0	7.3	10.6	48.8	△18.1
3분기	162.9	△1.0	91.5	0.8	40.3	△15.3	7.6	13.4	54.5	△5.7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3분기 휴대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2.3% 감소한 55.9억 달러로 스마트폰과 부품품 모두 수출이 감소

○ 스마트폰 수출은 글로벌 경쟁 심화, 전략 스마트폰 발화로 인한 파문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9% 감소한 15.4억 달러를 달성

- 8월에 갤럭시노트 7이 출시되었으나 연이은 발화사건으로 인해 9월 스마트폰 수출*은 전년동월 대비 44.8% 급감

* 삼성전자 물량이 60% 이상을 차지('15)

○ 부품품 수출은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품 현지조달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4.6% 감소한 40.5억 달러를 달성

< 휴대폰 수출 추이 >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

구분		'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6. 1분기	2분기	3분기
휴대폰	금액	60.8	73.2	71.9	84.4	61.6	64.9	55.9
	%	△7.9	12.6	10.6	23.4	1.2	△11.2	△22.3
스마트폰	금액	21.4	29.8	24.4	27.8	24.1	25.2	15.4
	%	△37.2	△0.7	△17.3	△5.1	12.6	△15.4	△36.9
부분품	금액	39.5	43.3	47.4	56.5	37.6	39.7	40.5
	%	25.8	26.2	34.7	46.4	△4.8	△8.3	△14.6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3분기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0.1% 감소한 73.9억 달러

- 최대 수출대상국인 중국의 공격적 증설로 수출 감소세 지속
 - 대형 LCD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이 저조한 가운데 스마트폰 OLED 탑재 증가로 OLED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16.3% 증가한 17.1억 달러를 달성

< 디스플레이 수출 추이 >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

구분		'15.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6. 1분기	2분기	3분기
패널	금액	83.0	86.6	82.2	74.3	60.9	64.5	73.9
	%	0.1	△0.6	△7.0%	△18.5	△26.6	△25.5	△10.1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3분기 ICT 무역 흑자는 전년동기 대비 8.0% 감소한 195.9억 달러

- 반도체(72.0억 달러), 디스플레이 패널(61.9억 달러), 휴대폰(35.3억 달러), TV(10.1억 달러) 등 대부분의 주력 수출 품목에서 흑자를 유지

< ICT산업 분기별 수출입 및 수지 추이 >

(단위: 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산업	ICT산업	증감률	전체 산업	ICT 산업
2010	연간	4,663.8	1,539.4	27.3	4,252.1	756.2	21.9	411.7	783.2
2011	연간	5,552.1	1,566.2	1.7	5,244.1	815.4	7.8	308.0	750.8
2012	1분기	1,348.5	353.9	-5.5	1,336.7	190.9	-4.8	11.8	163.0
	2분기	1,401.3	378.5	-5.0	1,304.3	188.9	-8.0	97.0	189.6
	3분기	1,331.3	398.6	-0.5	1,256.5	192.5	-7.2	74.7	206.1
	4분기	1,397.7	421.4	7.4	1,298.3	207.2	2.6	99.4	214.2
	연간	5,478.7	1,552.4	-0.9	5,195.4	779.3	-4.4	286.3	773.1
2013	1분기	1,353.3	387.0	9.3	1,296.8	192.2	0.7	56.5	194.8
	2분기	1,411.7	425.2	12.3	1,267.9	200.0	5.9	143.8	225.1
	3분기	1,367.9	436.4	9.5	1,259.7	200.6	4.2	108.1	235.8
	4분기	1,464.4	445.6	5.7	1,330.9	215.2	3.9	133.6	230.5
	연간	5,597.2	1,694.2	9.1	5,155.3	808.0	3.7	441.9	886.2
2014	1분기	1,375.5	411.4	6.3	1,323.5	207.2	7.9	52.0	204.2
	2분기	1,456.8	426.5	0.3	1,309.2	214.9	7.4	147.7	211.6
	3분기	1,418.0	438.6	0.5	1,328.7	214.8	7.0	89.3	223.8
	4분기	1,480.7	462.3	3.8	1,295.7	238.4	10.7	185.0	223.9
	연간	5,731.0	1,738.8	2.6	5,257.0	875.4	8.3	474.1	863.5
2015	1분기	1,334.4	418.3	0.3	1,118.4	224.3	7.4	216.0	194.0
	2분기	1,351.4	434.1	0.7	1,105.4	218.9	1.1	246.0	215.2
	3분기	1,284.9	442.5	-0.4	1,083.7	229.9	6.2	201.2	212.9
	4분기	1,300.9	433.7	-7.7	1,060.6	240.1	0.7	240.3	193.5
	연간	5,271.6	1,728.9	-1.9	4,368.1	913.2	3.6	903.5	815.6
2016	1분기	1,159.7	372.9	-10.9	936.1	216.7	-3.4	223.6	156.2
	2분기	1,261.5	391.4	-9.8	986.9	216.0	-1.4	274.7	175.3
	3분기	1,219.4	416.6	-5.8	1,021.7	220.7	-4.1	197.7	195.9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II. 반도체 산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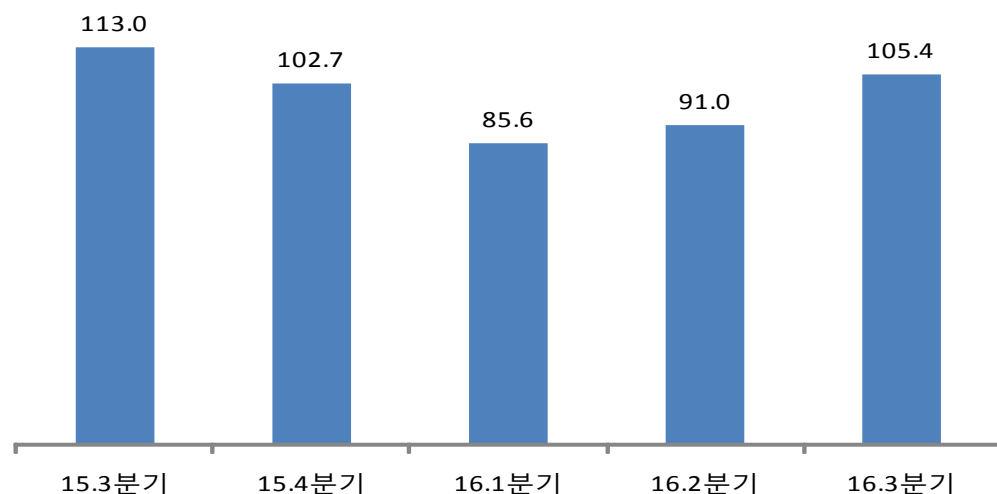
□ 3분기 세계 D램²⁾ 시장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6.7% 감소한 105.4억 달러

○ 시장 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축소되었으나 전분기 대비 15.8% 증가

- 전략 스마트폰(아이폰7, 갤럭시노트 7 등) 출시와 노트북 출하량 증가로 D램 가격이 소폭 상승하며 전분기 대비 성장세를 보임

< D램 시장규모 >

(단위: 억 달러)



출처: Dramexchange

□ D램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하며 시장지배력을 확대

○ 삼성전자의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0.2% 감소하여 시장성장률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시장점유율 50.2%를 달성

- 20나노 공정기술 우위로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시장점유율을 잠식하였으며 낮은 생산원가로 높은 영업이익률(37%)을 실현

2) Dynamic Random Access Memory. 전원이 공급되더라도 일정 주기마다 동작을 가하지 않으면 기억된 정보가 지워지며 가격이 낮아 대용량 메모리로 사용됨

-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상대적 기술적 열위로 시장점유율이 소폭 하락
- SK하이닉스는 21나노 공정의 수율 문제로 시장점유율은 전년동기 대비 3.2%p 하락하였으며 마이크론의 시장점유율도 0.7%p 하락

< 세계 D램 시장 규모 및 점유율 >

(단위: 백만 달러)

	회사	매출액			시장점유율	
		'16. 3분기	'15. 3분기	증감	'16 3분기	'15. 3분기
1	삼성전자	5,286	5,277	0.2%	50.2%	46.7%
2	SK하이닉스	2,617	3,159	-17.2%	24.8%	28.0%
3	마이크론	1,946	2,173	-10.4%	18.5%	19.2%
4	Nanya	322	323	-0.3%	3.1%	2.9%
5	Winbond	174	150	16.0%	1.7%	1.3%
6	Powerchip	64	89	-28.1%	0.6%	0.8%
	기타	127	127	0.0%	1.2%	1.1%
	총합	10,536	11,298	-6.7%	100.0%	100.0%

출처: DRAmExchange, Revenue ranking for branded Dram Manufacturers

□ 3강 체제가 공고한 D램과 달리 낸드플래시는 삼성전자를 추격하기 위한 후발주자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음

- 삼성전자는 낸드플래시 시장점유율 36%로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3D 낸드 투자를 공격적으로 추진
 - 4차 산업혁명으로 대용량 데이터 저장·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3D 낸드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 삼성전자는 선제적 투자로 후발주자와 약 3년의 기술격차를 보이며 평택공장에 15.6조원을 투자하여 세계 최대 3D 낸드플래시 단지를 조성할 계획
- 도시바는 '16년초부터 3D 낸드플래시 생산을 시작했으며 '17년부터 대규모 투자, 웨스턴 디지털과 협업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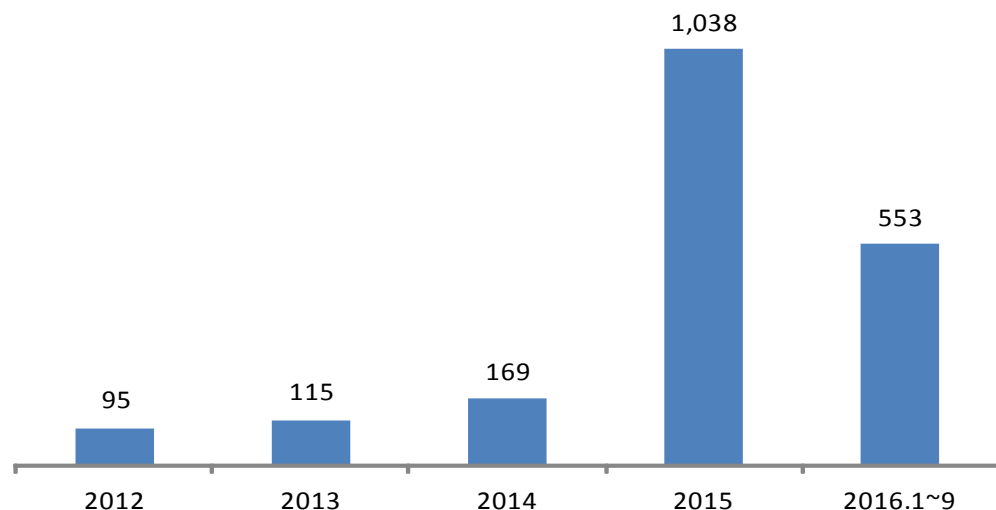
- SK하이닉스도 '16년말까지 48단 TLC³⁾방식의 3D 낸드플래시 메모리 양산을 추진

□ 반도체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M&A를 연달아 추진

- 3분기에는 510억 달러 규모의 M&A가 발표됨
 - 일본 소프트뱅크는 사물인터넷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영국 반도체 설계회사 ARM을 인수(320억 달러)
 - 미국 반도체 회사 Analog Device는 전력 제어용 반도체 기술에 강점을 보유한 Linear Technology를 인수(148억 달러)
 - 일본 자동차 반도체 회사 Renesas는 전기차의 배터리 전압을 제어하는 반도체에 강점을 보유한 미국 Intersil을 인수(32억 달러)
- '16년 9월 중순까지 발표된 반도체 M&A는 553억 달러 규모로 역대 최대 M&A가 발표된 '15년에 이어 두 번째 규모

< 반도체 M&A 규모 >

(단위: 억 달러)



주: 2016년은 9월 중순까지 누적

출처: IC Insights

3) Triple Level Cell

- 중국은 반도체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M&A에 적극적
 - 미국 정부의 반대로 미국 대형 기업 인수가 어려워지자 소규모 딜 중심으로 참여

< 중국의 반도체 기업 인수 현황 >

(단위: 억 달러)

피인수기업	국가	주요 제품	인수기업	금액	시기
LFoundry	이태리	자동차IC ¹⁾	SMIC	0.6	2016
NXP (Standard product)	네덜란드	디스크릿 로직, 파워IC	JAC Capital, Wise Road Capital	27.5	2016
옵티비전 테크놀로지	미국	이미지센서	Hua Capital Management, CITIC Capital, Golden Stone Investment	19	2016
STATS ChipPAC	싱가폴	패키징 & 테스트	JCET, SMIC, NICIF ²⁾	7.8	2015

주 : 1)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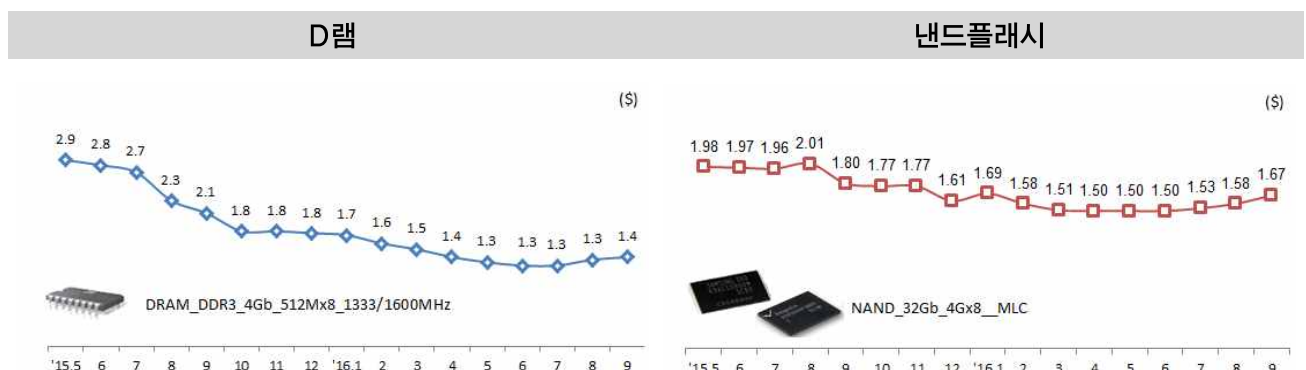
2) National IC Industry Investment Fund

출처 : 가트너, IBK투자증권 재인용

□ 메모리반도체 수요와 가격은 단기적으로 양호할 전망

- 중국 기업들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출시 증가, 사물인터넷·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메모리반도체 수요 증가
- D램 생산 규모 조정으로 수급이 개선되면서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

< 메모리반도체 가격동향 >



출처: Dramexchange

III. 디스플레이 산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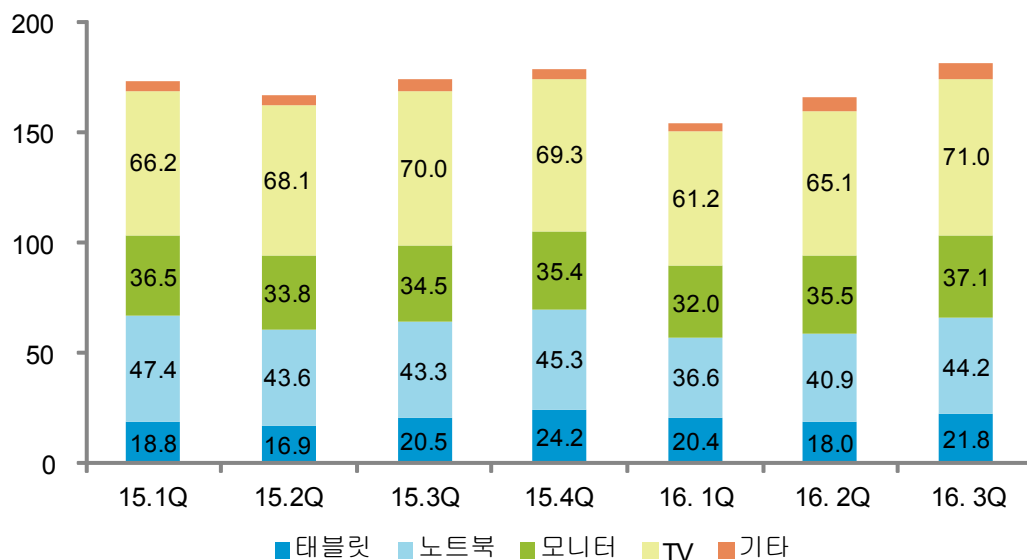
□ 3분기 대형 LCD 패널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3.9% 증가한 181.1백만대

○ TV, 노트북, 태블릿용 패널 출하량이 모두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특히 TV 패널 출하량이 7.5% 증가

- 10월 중국 연휴, 크리스마스 등 연말 성수기가 다가오면서 세트 업체들의 재고 축적을 위해 전분기보다 출하량이 증가

< 대형 LCD 디스플레이 패널 출하량 >

(단위: 백만대)



주: 태블릿은 9인치 이상

출처: IHS

□ 대형 LCD 패널시장에서 LG디스플레이가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BOE가 빠른 속도로 추격중

○ 중국 BOE는 공격적인 증설로 출하량이 전년동기 대비 60% 증가하면서 2016년부터 시장점유율 2위를 유지

- 삼성디스플레이는 1분기부터 신공정 도입에 따른 수율 문제를 겪으며 출하량이 감소하였으며 대형 LCD를 중심으로 생산 설비 조정중

< 대형 LCD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점유율 >

(단위: 백만대)

	회사	2016. 3분기		2015. 3분기	
		출하량	시장점유율	출하량	시장점유율
1	LG디스플레이	40.1	22.1%	39.4	22.6%
2	BOE	34.4	19.0%	21.5	12.3%
3	Innolux	30.3	16.7%	30.3	17.4%
4	AUO	29.3	16.2%	26.3	15.1%
5	삼성디스플레이	23.5	13.0%	29.7	17.0%
	기타	23.5	13.0%	27.1	15.6%
	합계	181.1	100.0%	174.3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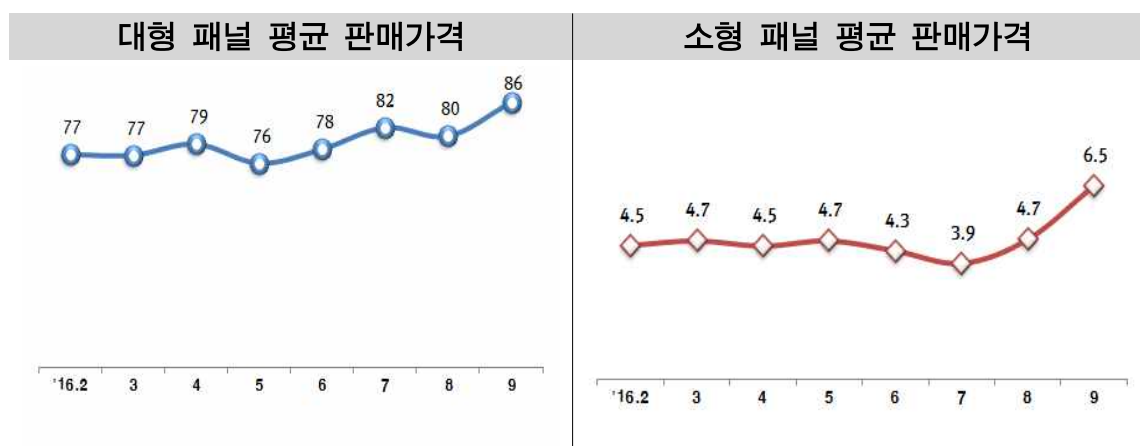
주: 출하량 기준

출처: IHS

□ 디스플레이 수급 개선으로 패널 가격이 소폭 회복세를 보임

- 주요 기업의 출하량 감소로 LCD 패널 공급과잉이 개선되면서 하락세를 지속하던 패널 가격이 안정화됨

< LCD 패널 가격동향 >



주: 대형 패널은 9인치 이상, 소형 패널은 9인치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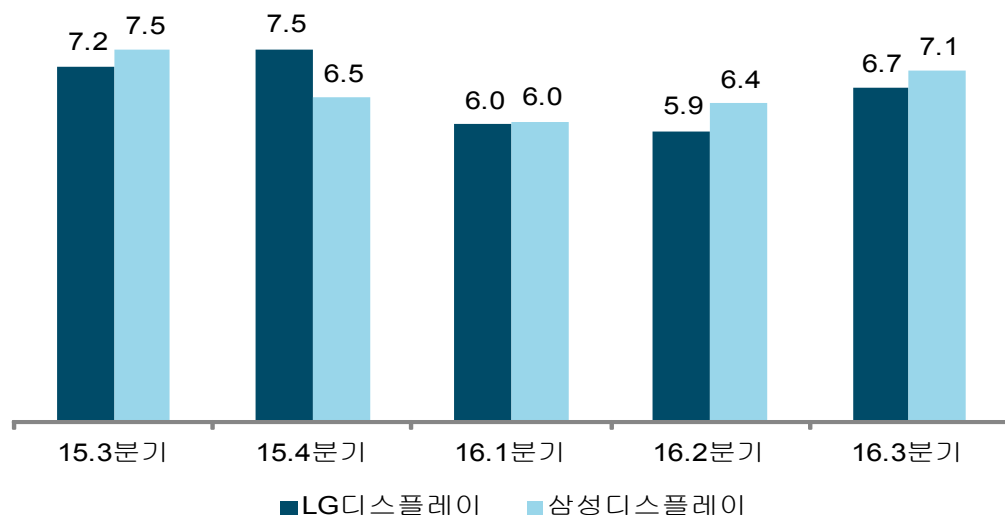
출처: IHS, 산업통상자원부

□ 우리기업들의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약 6% 하락

- LG디스플레이는 경쟁 심화, OLED TV 사업의 개화 지연으로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6.1% 하락한 6.7조원을 달성
 - TV는 매출의 39%를 차지하는 주력 품목이나 OLED TV는 가격 하락에도 소비자가 느끼는 장점대비 높은 가격(LCD TV대비 약 2배)으로 인해 LCD TV 수요를 대체하지 못하고 있음
- 삼성디스플레이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5.7% 하락한 7.1조원
 - LCD는 UHD⁴⁾·대형 패널 등 고부가 제품 판매 증가, OLED는 플렉서블 OLED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갤럭시노트 7 단종으로 인해 매출액이 일부 영향을 받음

< 주요 기업 매출 현황 >

(단위: 조원)



출처 : 전자공시시스템

□ 중국의 추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는 대형 TV 시장에서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을 선택

- 삼성디스플레이는 중국 가전회사인 TCL 그룹의 계열사이자 중국 2위 사업자인 CSOT의 11세대 LCD 생산법인에 3,500억원을 투자 (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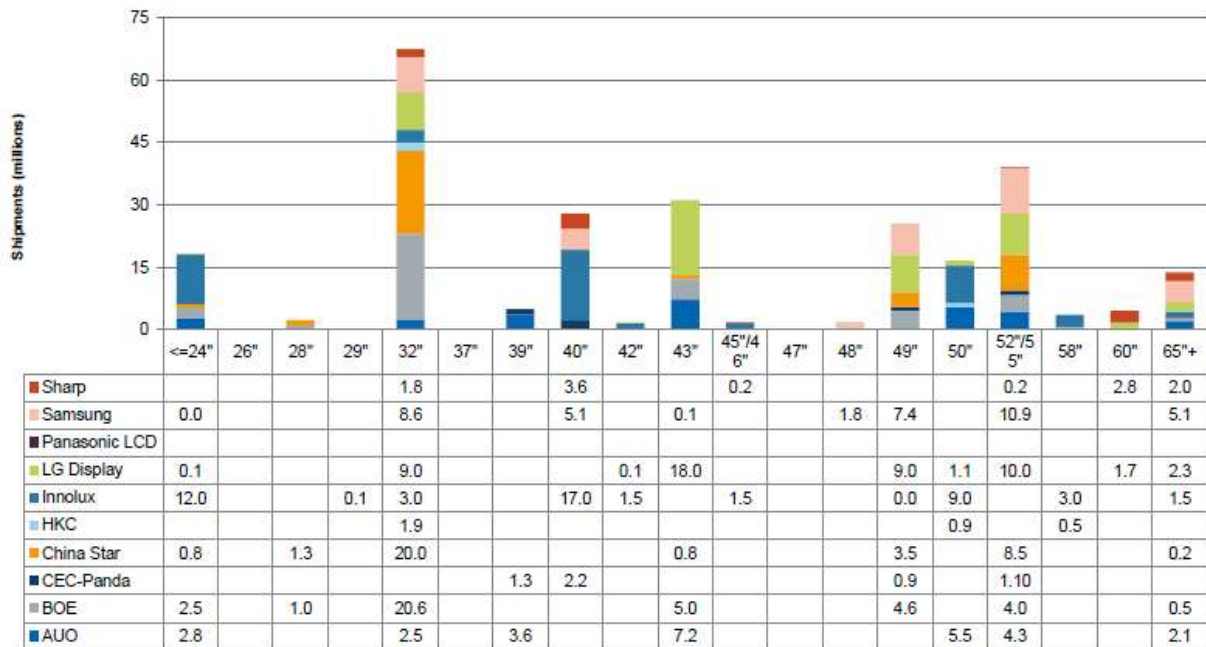
4) Ultra High Definition. 약 830만 화소로 FHD보다 해상도가 4배 높음

- '19년 7월 가동 예정으로 65인치, 70인치 대형 LCD TV 패널을 주력으로 생산할 계획)

※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IHS는 65인치이상 대형 LCD 패널 출하량은 '15년 6.8백만대에서 '17년 13.7백만대로 약 3배 증가

< '17년 주요 기업의 LCD TV 패널 크기별 출하량 전망 >

(단위: 백만대)



출처 : IHS

- 삼성디스플레이는 OLED 투자에 집중하고 중국기업과 협력을 통해 LCD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대형 패널 수급 안정화를 추구
- 중국기업의 LCD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경쟁대신 협력을 통하여 대규모 투자 없이도 대형 패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대형 TV 시장에서 경쟁력 유지를 꾀함

□ 디스플레이 업황은 단기적으로 양호할 전망

- 대형 TV 수요 증가, 삼성디스플레이 LCD 라인의 OLED 전환으로 단기적으로 수급이 타이트하여 패널 가격이 소폭 인상될 전망
- 55인치 이상 TV 수요는 '20년까지 연평균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삼성디스플레이는 '17년 1분기에 7세대 LCD라인을 OLED로 전환할 계획으로 LCD 공급과잉이 일부 해소될 전망

5) 8세대 라인에서는 60인치, 65인치는 각각 3장 생산 가능하나 11세대는 8장 생산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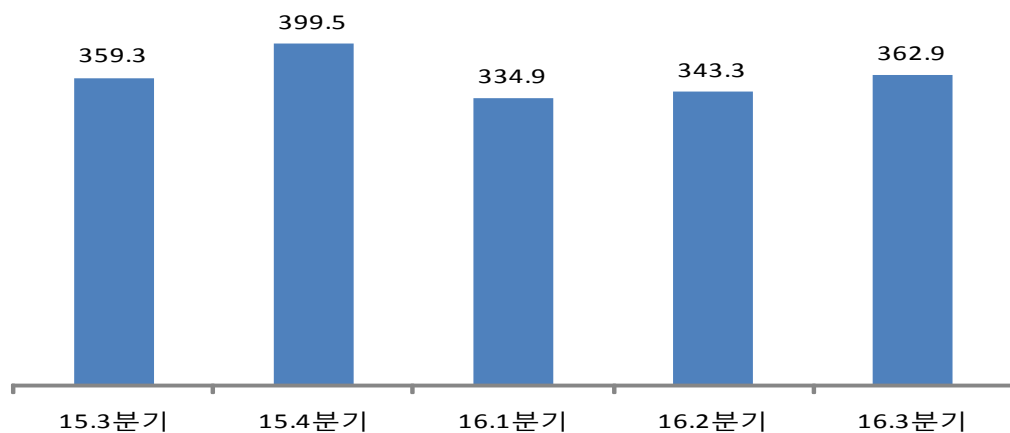
IV. 휴대폰 산업동향

□ 3분기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1.0% 증가한 362.9백만대

- 갤럭시노트7 리콜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1.0%, 전분기 대비 5.3% 증가

< 스마트폰 출하량 >

(단위: 백만대)



출처 : IDC Worldwide Quarterly Mobile Phone Tracker

□ 출하량 기준으로 중국 3사의 시장점유율이 처음으로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을 추월하며 빠른 속도로 추격하고 있음

- 화웨이, 오포, 비보의 시장점유율은 22.1%로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보다 2.1%p 높음
 - 8월에 출시된 갤럭시 노트 7 리콜의 영향으로 삼성전자의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13.5% 감소하면서 시장점유율은 3.3%p 하락
 - 중국 3사의 출하량은 전년동기 대비 63% 증가한 8,010만대로 삼성전자 출하량보다 10.5% 많음
 - 화웨이와 오포는 해외사업을 강화하면서 세계 시장점유율을 확대
 - 화웨이의 해외매출 비중은 47%로 전년동기 대비 7%p 증가
 - 오포의 해외매출 비중은 약 30%이며 아태지역 출하량(중국 외)은 전년동기 대비 3배 증가

< 2016년 3분기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

(단위: 백만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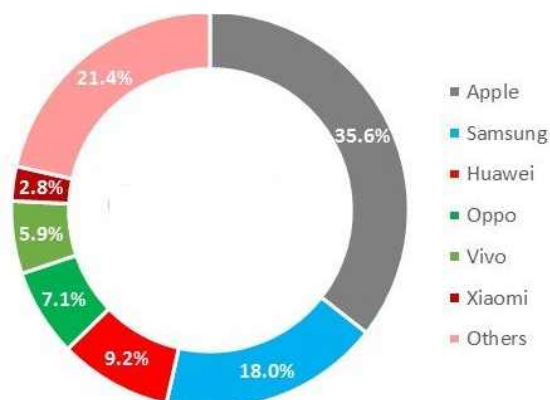
	회사	2016. 3분기		2015. 3분기		전년동기비 증감
		출하량	시장점유율	출하량	시장점유율	
1	삼성전자	72.5	20.0%	83.8	23.3%	-13.5%
2	애플	45.5	12.5%	48.0	13.4%	-5.3%
3	화웨이	33.6	9.3%	27.3	7.6%	23.0%
4	오포	25.3	7.0%	11.4	3.2%	121.6%
5	비보	21.2	5.8%	10.5	2.9%	102.5%
	기타	164.8	45.4%	178.2	49.6%	-7.5%
	합계	362.9	100.0%	359.3	100.0%	1.0%

출처 : IDC Worldwide Quarterly Mobile Phone Tracker

□ 매출 기준 시장점유율도 중국 3사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매출액을 추월

- 중국 3사의 매출 기준 시장점유율은 22.2%로 삼성전자 시장점유율보다 4.2%p 높음
 - 중국 3사의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은 70% 이상이나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7 파문으로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15% 하락
 - *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 증가율(%): 화웨이 91%, 오포 73%, 비보 90%
 - 중국 3사는 저가 제품에 집중한 샤오미와 달리 중고가 제품 출시를 확대하고 있어 삼성전자에 위협적
 - * 오포의 판매량중 300달러 이상의 제품 비중이 54%를 차지

< '16년 3분기 매출액 기준 스마트폰 시장점유율 >



출처 : Counterpoint Research

□ 전략 스마트폰(갤럭시노트7, G5)의 부진으로 인해 국내 주요 기업의 실적 악화 심화

- 갤럭시노트7 리콜과 판매중단으로 삼성전자 IM부문의 3분기 영업이익은 1,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6% 급락
 - 현재까지 갤럭시노트7 관련 총 8건의 발화사례가 알려져 출시 53일만에 전격적으로 단종이 결정됨
 - 초기에는 배터리 문제로 알려졌다으나 배터리 교체후에도 발화사례가 발생하여 현재 조사 진행중
 - 갤럭시노트7 1차 리콜 관련 손실, 단종에 따른 비용을 반영하면서 스마트폰 사업 시작후 역대 최저 실적을 보임
- LG전자 MC 부문의 영업손실은 4,364억원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손실이 3.5배 증가하였으며 '15년 2분기이후 적자 지속
 - 상반기에 출시된 전략 스마트폰 G5의 부진, 사업구조 개선으로 수익성 악화
- 삼성SDI는 갤럭시노트7 파문으로 소형전지 사업이 악화되면서 영업손실은 전년동기 대비 7배 증가한 1,104억원 발생
 - 갤럭시노트7에 탑재되는 배터리의 약 70%를 삼성SDI가 공급
- 삼성전기의 영업이익은 12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87% 하락
 - 갤럭시노트7에 카메라모듈 등 부품을 공급하였으며 삼성전기의 삼성전자 매출 의존도는 62%('15)

< 주요기업 영업이익 추이 >

(단위: 억원)

	'15.2분기	3분기	4분기	'16.1분기	2분기	3분기
삼성전자-IM부문	27,600	24,000	22,300	38,900	43,200	1,000
LG전자-MC부문	-192	-963	-609	-2,022	-1,535	-4,364
삼성SDI	-37	179	-808	-7,038 ^{주)}	-542	-1,104
삼성전기	941	1,015	206	429	152	128

주: 경영효율화(희망퇴직 등) 비용 반영

출처: 각사 홈페이지

□ 갤럭시노트 7 파문은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에 영향을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영향은 없을 전망

- 삼성전자 휴대폰 사업부문의 실적은 내년 1분기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삼성전자는 상반기에는 갤럭시S 시리즈, 하반기에는 노트 시리즈를 출시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갤럭시S8이 출시되기 전까지 단기적으로 실적하락이 불가피
 - 실적 하락을 막기위해 삼성전자는 상반기 전략폰인 갤럭시S7 블루코랄 버전을 출시하고 중저가 라인인 갤럭시A, J 등의 생산을 확대할 계획
- 삼성전자는 탄탄한 충성고객 기반을 확보하였으며 단일 모델에서만 문제가 발생하여 장기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전망⁶⁾
 - 갤럭시노트7 문제 발생 초기에 소비자들은 환불 또는 다른 배터리를 탑재한 새 기기로 교환 할 수 있었으며 구매고객의 90%가 교환을 선택
 - 갤럭시노트7에서 발생한 문제가 타 모델에서는 발생하지 않아 브랜드 가치 훼손이 상대적으로 적음

6) Harvard Business Review, 'Why Samsung's Note 7 crisis won't hurt its brand long term', 2016.10